

**종합**

# 영광에 전기차 업체 몰려온다

### CT&T·AD모터스·탑알엔디 등 코스닥 3개사 투자 결정 투자금만 1800억 ... 郡, 전기요금 지원 등 파격조건 한몫

영광군이 국내 전기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전망이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5개 전기 자동차업체 가운데 CT&T와 AD모터스, 탑알엔디가 현재 조성중인 대마산단지 등에 투자유치를 결정했고, 다른 업체들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CT&T는 현재 조성중인 대마산단에 5만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본사도 영광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1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5만대의 전

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AD모터스 역시 조만간 군과 MOU를 체결한 후 대마산단에 5만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380억·연구개발 12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자해 연간 4만3000여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탑알엔디는 백수를 백수고 폐교부지를 확보하고 106억원을 투입해 생산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미래 녹색 성장 사업으로 주목받는 전기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영광을 찾는다는 기업당 전기요금을 전국 최

초로 최고 2억 원까지 5년간 지원해주며,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100억 한도까지 지원하는 등의 풍부한 인센티브 때문에 풀이된다. 또 영광을 세계적 전기차 메카로 키우려는 영광군의 의지에 관련 업체들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지난 4월 서해안고속도로, 법성~광주 간 22번 국도를 제외한 관내 60km 이하 모든 도로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3대의 전기차를 구입해 관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전남도와 함께 도내

22개 시군의 환경 및 구매 담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기 자동차 활성화 위한 공공부문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관, 공공기관 등에 저속·고속 전기차 구매에 각각 750만원과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속형 전기차 실증연구단지 조성 및 특구 지정에 힘써 영광을 세계적인 전기차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며 “관련 업체들의 잇단 유입으로 경제적 효과, 산업기반의 다양화, 고용 효과, 지방 세입 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북 지원 쌀 모금운동** 16일 오후 6~15공동선안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두암동 흥플러스 앞에서 북한 수해지역에 쌀을 보내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영구임대 입주 '29개월 대기' 해외이주자 감소 ... 올해 1000명 밀돌듯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29개월씩을 기다려야 하는 등 평균 27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14만78세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중인 사람은 모두 6만3341명이었다. 또 이들이 입주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평균기간은 27개월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기기간은 인천이 63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는 경기 53

개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각각 29개월, 전북 28개월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상임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 9월까지 매각에 성공한 보유토지는 지난해(10조746억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4조943억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LH는 아직 21조5043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보유 부동산 매각노력이 미흡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외로 이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올해 1000명 미만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성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해외이주자를 신고한 국민은 모두 694명이고 월 평균 77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이주 신고자는 연말까지 모두 900명 안팎을 기록,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이주 신고자는 2000년 1만 5307명을 기록했다가 2003년 9509명

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05년 8277명, 2006년 5177명, 2007년 4127명, 2008년 2293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153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9월까지 해외이주 신고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93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74명), 호주(107명), 뉴질랜드(10명), 기타 국가(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형태별로는 혼인 및 친족관계에 따른 연고이주가 302명으로 43.5%를 차지했고 독립이주(169명), 취업이주(88명), 국제결혼(71명), 사업이주(64명) 등이 뒤따랐다. /연합뉴스

## 호남권 R&D 자금 1.6% '쥐꼬리 지원'

### 민주 김재균의원 "수도권은 60% ... 지역격차 심화"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지역 R&D(연구·개발) 지식기반산업 육성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 산하 R&D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사업화 자금은 수도권에 59.9%가 지원된데 비해 호남권에는 1.6%만 지원됐다.

정보통신성장기술통계개발사업비 수도권엔 78.5% 지원된 반면 호남권은 불과 1.8%만 지원됐고, 연구개발비는 수도권에 45.8%, 호남권에는 3.5%가 지원되는 등 호남권에 대한 R&D 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MB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 R&D사업 지원 부문에서 호남권 지원비중이 가장 취약하다"며 "정부는 공개경쟁이라는 절차적 합법성과 지역 연구 인력의 한계 등을 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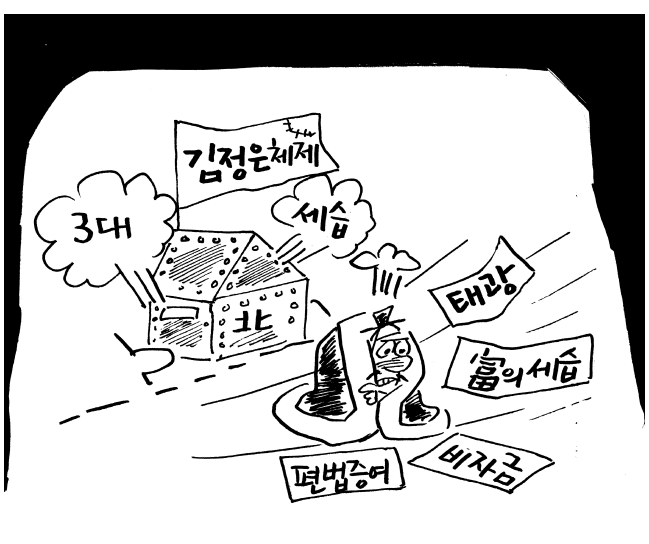
우며 지역 육성에 대한 전략적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는 장기적으로는 R&D 특구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도 연구집적화 단지인 테크노파크, 광주 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분원, 디자인센터 등 경쟁력을 갖춘 연구 기관이 많아서 정부가 최소한의 지역육성에 대한 의지와 방안을 세운다면 조만간 대전 대덕처럼 고급 두뇌집단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빛의 만평

- 김중두



누가 누굴 비난할꼬?!

## 태광그룹 이호진회장 檢, 이르면 주초 소환

태광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형근 부장검사)는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이 케이블 TV 사업 확장 로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에 조직적으로 인맥 관리를 했다는 일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 회장 측이 방통위와 청와대에 우호적인 인사를 만들려고 학벌과 인맥이 좋은 직원을 추천해 각종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태광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회장을 이르면 주초에 소환 일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재외국민 286만명 영주권자 121만명

재외국민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주권행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작년 현재 재외국민 수는 영주권자 121만9000명(이하 1000명 단위)을 포함해 총 286만9000명이며 2012년 선거일 현재 만19세가 되는 선거인수는 229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작년 7월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 상 미국(109만 8000명), 일본(59만1000명), 중국(41만3000명) 3국의 재외국민은 210만 2000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흑산도·홍도 멧새 개체수 급감 생태계 파괴에 따른 오염원 탓"

### 목포 '철새 심포지엄' 주제발표

'철새 중간 기착지인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를 통과하는 멧새 개체수가 격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연구센터(신안군 흑산면)는 1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국제 철새 심포지엄'에서 '동아시아 중간 기착지에서 멧새류의 이동 생태 모니터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흑산도와 홍도에서 관찰 및 포획된 멧새

류의 종별, 시기별, 성별 도래일 변화 등을 관찰해 왔다.

이 기간 노랑눈썹 멧새 등 멧새류 7종으로부터 2만 5462회의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연구센터는 가을철 흑산도를 통과하는 멧새의 80% 이상 이 해에 태어난 어린 개체로, 장거리 이동 경험이 없어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동 과정에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오염원에 의해 죽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금미 305호 피랍 소말리아 해적에

케냐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금미 305호가 지난 9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금미수산 선박대리점에 따르면 금미305호(241t)에는 선장 김모(54)씨와 기관장 다른 김모(67)씨, 중국인 선원 2명, 케냐인 39명이 승선하고 있다.

지난 4월초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대형 유조선 삼호드림호 사태가 190일이 넘도록 장기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피랍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우리 선박의 해상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6년근 活精源

### 홍삼 활정원

아침 저녁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과 함께 드십시오!!

어울림참삼이더에서는 공진단, 우황청심원과 함께 중국황제에게 진상되던 3대 비약중 하나로 정기간이 전정의 약조전 속에서도 항상 건강유지했던 비결이라고 전해지는 경옥고를 업그레이드한 6년근 홍삼 활정원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정성껏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의 처방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수록된 제1처방으로, 양성연년약이편(養性延年藥餌篇,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옥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진기를 고르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울림 참삼이더 이야기**

어울림 참삼이더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세계적 명차 6년근 홍삼 활정원(경옥고 류)을 배워 만들어 판매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일반교육생모집 (10주)과정 (직장인, 일반인)**

- ▶경옥고 학교: 4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5:00 월회비: 100,000
- ▶전통차(비이차, 말차, 녹차): 4회 매주 화요일 10:00-13:00 1회 일반회원: 30,000
- ▶바리스타(커피이더): 4회 매주 금요일 10:00-15:00

☎062)676-8877 Fax: 655-7009 주 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삼이더**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

## 전남·북시군지시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치장 원비

##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문봉로 77 전남대학교 용지관 문화전문대학원  
Tel: 062-530-4061~4063 Fax: 062-530-4069

공의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문화전문인력 양성  
국내 최초 유일의 Culture-School

###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 문화로 꿈을 향하여 리자인 하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세상을 밝혀줄 길  
문화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모집일	모집인원	지원지역
문화경영 및 관광경영	00명	가. 용사계별 출신(과제, 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지원서류 평가(학위를 취득했거나 2011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 또는 병역에 의하여 미충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00명	
계	30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최종합격자발표
석사학위 과정	2010.11.2~11.12	1차: 2010.11.19 2차: 2010.11.25	2010.12.21

문의

- 행정실: 062) 530-4061~4063
-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culture.chonnam.ac.kr) 참조